

한강청-협회-자율협약사업장, 상생협력을 위한 협약체결

◇ 비산먼지 저감 및 순환골재 사용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체계 강화 기대

우리 협회는 지난 2월5일(금) 정병철 회장과 경기동부 임동주 지회장, 한강유역환경청 정경윤 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협회 회의실에서 ‘환경재난 대응 및 순환골재 사용 활성화를 위한 자율협약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20.11.24 한강청과의 간담회 개최 이후 협회에서는 한강청과 실무협의를 통해 협약 내용 및 범위 등을 조율하였고, 그 결과 한강청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순환골재 우선 사용 권고 등의 협의 조건을 부여토록 하는 내용이 반영되었습니다.

한편, 지난 1월21일 개최된 수도권 지회장 회의에서는 한강청과 조율된 협약내용을 최종 확정하면서 각 지회별로 소속 회원사가 자율협약사업장으로 참여토록 서명부 등을 취합키로 하였고, ‘21.2.5 현재 77개 회원사 중 64개 회원사가 이에 동참하였으며 추후 참여의사가 확인되는대로 추가될 예정입니다.

구 분	협약 주요 내용	
한강유역 환경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율협약 사업장에 대한 교육 지원, 소통강화 등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순환골재 우선 사용 권고 등 협의 조건 부여 	
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순환골재 등 인식개선을 위해 견학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자율협약 사업장 (수도권 회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월부터 3월까지) 동안 비산먼지 등 배출 저감을 위한 자체적 방안 설정 및 운영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시설 운영·조정,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최적 운영, 자체 비상 연락망 유지 등 태풍, 홍수, 지진 등 환경재난 발생 시 중장비 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산먼지 저감 자율 관리체크 리스트를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관리

협약 체결식에서 정경윤 청장은 “금번 협약이 상호 간에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자원순환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봄철 미세먼지 저감 등에도 적극 노력 해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한편, 협회에서는 향후 다른 지역 유역·지방환경청과도 순차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역 민원과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율 협약식 전경]



[참석자 기념촬영]